

### ■ 연구원 소식

#### ○ 2019년 1차 역사문학기행 안내

2019년 모두 4회에 걸쳐 예정된 역사문학기행의 첫 번째 답사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역사문학기행은 소설가 故 이문구 선생의 작품 <관촌수필>의 배경이었던 보령시를 찾아 나서는 여정입니다.

1. 일 시: 2019년 5월 11일(토) 09시~18시
2. 장 소: 보령시 일원
3. 내 용: <관촌수필>의 배경을 찾아 만나는 보령시 일원
4. 참 가 비: 20세 이상 1만원
5. 세부일정

일 정	내 용	비고
09:00~10:30	전주대학교 -> 화암서원 이동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산 27-1
10:30~11:30	화암서원 및 성주사지 답사	
11:30~12:00	화암서원 -> 관촌마을	보령시 대천동 387
12:00~13:00	관촌마을 답사	
13:00~14:00	점심식사	
14:00~16:00	한산 모시관 및 신성리 답사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125-1
16:00~17:30	신성리 갈대밭 -> 전주대학교	

※ 연구원 사무국으로 5월 3일까지 참가 신청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시는 분에게 관촌수필 해석 요약본과 탐방지역 소개글을 전해드립니다.

## ○ 제3차 해외역사탐방 신청 안내

1. 탐방기간 : 2019년 8월 1일(목) ~ 8월 7일(수) <6박 7일>
2. 탐방지역 :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3. 주방문지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레닌 언덕, 성 바실리 사원, 크렘린 궁, 우주박물관, 김규면 장군 묘소, 에르미타주 박물관, 도스토옙스키 박물관, 볼쇼이 극장, 붉은 광장, 민영환 숙소, 대한제국 공사관, 이범진 공사 순국지, 네바강, 피터폴 요새 및 성당,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술가 묘역, 뱃머리 등대, 상트페테르부르크 여름궁전, 푸쉬킨 박물관 등)
4. 참가인원 : 연구원 회원 및 시민 25명(회원 우선 선발)
5. 참 가 비 : 1인당 2,500,000원
7. 입금계좌 : 전북은행 505-13-0345110 (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
8. 신 청 : 연구원 사무국, 063)286-3005, hangoyeon@hanmail.net
9. 신청기간 : 2019년 5월 10일(금) 마감
10.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참 조
여권사본	신청시 즉시 제출(jpg 파일 전송)
선입금 참가비	250,000원

11. 신청방법 : [hangoyeon@hanmail.net](mailto:hangoyeon@hanmail.net) (5월 10일 18시 전송분에 한함)

\* 신청 후 확인 요망 (063-286-3005 / 010-6275-0409)

**참가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 역사 속의 오늘

### 땅벌작전 (1979년 4월 27일)

지금이야 40년도 훨씬 지난 일이니 회자되는 일도 거의 없지만 1970년대 서울의 밤을 사치와 향락으로 물들였던 7공자 게이트가 있었다. 재벌, 언론사, 고위공무원, 사학재단, 종교계 인사의 아들 일곱이 온갖 추문으로 세인의 입에 오르내렸던 일이다.

오늘의 역사 속의 오늘은 그 가운데 한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일이다. 그는 7공자 게이트의 주인공답게 배우, 가수, 아나운서와 세 번의 혼인과 이혼을 반복했다. 민인들과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던 그에게 난데없는 시련이 닥친 것이 1979년 4월 27일이었다. 그가 살던 으리으리한 저택에 무장강도가 들이닥친 것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무장 강도단은 대졸 출신의 인텔리이자 시국 관련 전과자들이었다.

**27일 상오 1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반포동 590의8 ○○그룹 회장 최○○씨 집에 3인조 강도가 들어 경비원 김○○씨를 칼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후 달아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씨는 붙잡히고 공범은 2명은 달아났다. -1979년 4월 27일 경향신문 기사 중-**

강도들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소총과 실탄을 빼돌렸고 서울의 고위공직자와 재벌들을 대상으로 강도행각을 벌일 나름의 계획도 세우고 있었는데 그들이 목표로 정한 7공자 게이트의 한명이었던 최○○의 집을 털기로 한 작전명이 "땅벌작전"이었다. 이들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이하 남민전)의 조직원들이었다. 이들은 반유신투쟁을 위한 자금 확보와 독재정권과 공생하던 재벌과 고위공무원에 대한 응징이라는 중층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독재정권이 아니었다면 시나 소설을 쓰고 교단에서 착실히 아이들을 가르쳤을 이들은 견결한 강도가 되기에 너무도 허술하고 어설퍼다. 경비원 한명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고 킁킁댔으며 겨우 묶었는가 싶었으나 곧장 풀려나 경비원과 몸싸움을 벌여야 했고 그 와중에 상해를 입혀(기사와 다르게 전치 3주였다) 강도상해범이 되었다.

그 뿐이 아니었다. 혁명을 위한 조직의 구성원이었음에도 보안(保安)의식도 희박했다. 칼에 찔린 경비원을 곁에 두고 지혈하며 “혁명을 위한 군자금” 운운하는 어이없는 대화를 나눴다. 결국 경비원에 의해 전달된 대화 내용은 당시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이근안’의 귀에 들어갔고 그 결과 강도상해범이 아닌 반국가조직의 구성원으로 구속기소 되었다.

“남민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조직 이름은 베트남이라 불렀던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을 그대로 따오고 총기를 휴대한 채 자금 마련을 위한 강도 행각을 벌이는 이들의 출현에 정부는 물론이고 반정부 활동가들까지도 충격에 휩싸였다. 유신의 ‘오’만 반대해도 징역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일어야 했던 때였다.

한때 유신독재정권의 한 수레를 탔던 이들도 “남민전”에 등을 돌리며 ‘급진좌경맹동주의’라는 딱지를 붙였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급진’은 아니었다. “남민전”이 결성된 것은 2차 인혁당 사건으로 여덟명이 살해당한 이듬해였다. 그들은 조직의 깃발을 인혁당 피해자의 속옷으로 만들었다. ‘유신의 칼날’에 쓰러져간 이들의 속옷으로 만든 깃발을 보며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일렁였을까 짐작하기 어렵다.

그들의 행각은 2019년의 시각으로 보면 ‘미친 짓’에 가깝고 경비원이 칼에 찔렸으니 강도치상 범죄를 구성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도양양하던 청년들을 미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그들을 손가락질한다면 앞서 총을 들게 만든 시대의 강도 “유신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이 함께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박정희 정권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함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유신 쿠데타를 일으키고 노동자들의 입에 똥을 먹인 과실은 밤문화 게이트를 만든 이들이 따 먹던 일이 극에 달했던 1979년 4월 대한민국은 분명 얼어붙어 있었다.

1979년 4월 27일, 남민전의 ‘혁명가’들이 일으킨 “땅벌작전”의 피해자 최○○은 아버지로 부터 상속받은 기업을 모두 날리고 보물선 사기(돈보스코 사건의 원조)극을 벌인 후 지금도 작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있다. 당시 현장에서 붙잡힌 강도 이○○은 1984년 시인으로 등단했고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다 현재 재선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다.

## ■ 천년 암자에 오르다

### 부처님 사리모신 설악산 봉정암, 다섯 번째 이야기 - 봉정암과 자장율사

백담계곡과 수렴동계곡, 구곡담계곡을 거치는 산행은 대체로 평탄하다. 그러나 그 행복한 산행 말미에는 예의 '깔딱고개'가 나온다. 이제 봉정암으로 들기 위한 마지막 고비다. 진신 사리를 모신 봉정암의 오층석탑을 친견하고자 많은 불제자들이 막바지에 힘을 내는 곳이다. 짜릿한 환희를 맛보기 위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치러야 할 짧은 고통이지만 결코 녹록치 않다. 고개 위쪽에 '사자바위'가 우뚝 솟아 있다.



봉정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신 암자

봉정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암자로 유명하다. 해발 1,244m의 높이인데도 성지순례에 나선 사람들로 늘 붐빈다. 봉정암의 창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건네진다.

신라의 자장율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실 길지를 찾아 이곳저곳을 순례하던 즈음이다. 어느 날 휘황찬란한 빛을 뿜는 봉황이 하늘에 나타났다. 이를 범상치 않게 여긴 자장율사는 몇 날 며칠을 뒤쫓았다. 마침내 봉황은 높은 봉우리 위를 선회하다 갑자기 어떤 바위 앞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자장율사가 가만히 살펴보니, 그 바위는 부처님의 형상 그대로였다.

그런데 봉황이 사라진 곳은 바로 부처님의 정수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다. 게다가 부처님 모습을 닮은 바위를 중심으로 좌우에 일곱 개의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 있었다. 자장율사는 이 자리가 봉황이 알을 품고있는 형상을 지닌 길지 중의 길지임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부처님 형상의 바위에다 부처님의 뇌사리를 봉안한 뒤, 5층 사리탑을 세우고 암자를 지었다.



참배객과 진신사리 탑 지난한 발걸음들이 모두 이곳에 멈춰 서서 저마다의 소원에 잠겼다.

봉정암은 전설에서 나온 이름인데, 봉황이 부처바위의 정수리 부분으로 사라졌다고 해서 붙여졌다. 봉정암 뒤에는 '부처바위'가 우뚝 솟아 봉정암을 굽어본다. 봉정암을 창건한 자장율사(590~658)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의 「자장정률慈藏定律」편이 자세한데, 이를 통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다.

자장의 속성(俗姓)은 김(金)으로 소판(蘇判) 무림(茂林)의 아들이다. 늘그막까지 슬하에 자식이 없던 무림 부부는 불교에 귀의해 '만일 아들을 낳게 되면 반드시 부처님께 바쳐 장차 불교계의 큰 인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서원하였다.

마침내 이듬해 사월 초파일에 아들이 태어났기에 그의 이름을 선종랑(善宗郎)이라 했다. 뒷날 어머니에게서 자신의 출생에 관한 비화를 들은 선종랑은 부모가 돌아가신 뒤 홀연 처자식을 버린 후 자신의 산에다가 원녕사란 절을 짓고 수행에 전념하였다.

그 즈음에 선덕여왕이 그를 발탁해 재상으로 삼으려고 하자, 자장은 한사코 이를 사양하였다. 여왕은 '만약 왕명을 어기면 목을 베겠다.'라고 엄명을 내렸지만, 자장은 결연한 자세로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고 한다.

“나는 계를 지키며 단 하루를 살지언정, 계를 어겨 가면서 백 년살기를 원하지 않노라!”

이 말을 전해들은 선덕여왕은 마침내 자장의 출가를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자장은 정식으로 승려가 되었다. 서기 636년 자장은 당나라로 들어가 수행하던 도중에 지금은 오대산으로 불리는 청량산에서 노승으로 현신한 문수보살을 만나 부처님 진신사리와 가사를 전해 받았다. 그리고 643년에 당나라의 황제가 하사한 불상과 불경을 받아 신라로 돌아왔다.

자장은 귀국 후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워 신라의 기상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나라의 안녕에 크게 기여하였다. 황룡사에서 『보살계본』을 칠일 낮밤으로 설하던 자장은 재가 불자들에게 여덟 가지 계율을 지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이끌었다.

그 다음에 아홉 마리 용이 살고 있던 연못을 메워 통도사를 세우고, 중국에서 가져온 진신사리를 금강계단에 모시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름마다 승려들로 하여금 포살법회를 열어, 지난 보름동안 지은 죄가 있으면 참회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출가 제자들에게는 철저히 계를 지키도록 하여 청정한 승단을 이루는 데 힘을 쏟았다. 이런 활동으로 마침내 자장에게 '율사律師'라는 칭호가 따라붙게 되었다.



**봉정암의 바위** 쉽사리 범접할 수 없는 위용을 지닌 바위들이 지금도 봉정암을 근엄하게 지킨다.

자장율사는 그 후로 강원도의 오대산 상원사, 영월 정암사, 사자산 법흥사 그리고 봉정암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나누어 모셨다. 문수보살께 기도를 올려 영험을 얻으려는 '문수신앙'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봉정암은 온통 바위로 둘러싸였다. 뒤쪽의 부처바위는 물론이요, 곰바위, 부부바위 등 크고 작은 암벽들이 병풍 역할을 한다. 봉황귀소형(鳳凰歸巢形) 자리답게 바위들이 호위하는 형국이다.

봉정암 건물은 일 년 내내 비닐로 싸여 있다시피 한다. 해발 1,244m의 높은 곳에 터를 연 까닭에 바람과 추위가 수시로 찾아드는 탓이다. 조금이라도 평평한 주변의 터는 신도들과 등산객들의 숙소로 바뀌었다.

얼마 전까지 봉정암에 묵었다 가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을 때는 3,000명을 상회하곤 하였으니, 좁은 공간에 그야말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북적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1,400명으로 제한해서 인터넷 예약을 받는다. 그런데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방문객들을 위해 미역된장국과 주먹밥을 싸는 암자 식구들의 손길은 늘 바쁘다.

본래 봉정암은 이렇게 복잡한 곳이 아니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찾는 이가 드문 한적한 곳이었다. 험한 길을 걷는 등산객들을 위해 자그마한 대피소 하나를 운영하던, 한겨울에는 내내 적막에 묻혀있던 고요한 암자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찰이나 불교대학에서 행하는 성지순례에 봉정암이 꼭 끼게 되었고, 문수신앙의 효험을 믿고 찾는 신도들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되었다. 결국 헬기로 쌀과 부식을 실어 나르고, 빈틈을 찾아 꾸준히 숙소를 넓혀 나갈 수밖에 없었다.

봉정암은 더 이상 눈빛 푸른 스님들이 한철 지낼 양식을 등에 매고 수도를 위해 찾아들던 암자가 아니다. 이제는 수많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품을 찾는 명소, 승속을 떠나 너나없이 신심(信心) 하나로 찾는 암자가 되었다. 힘들고 괴로운 걸음을 먼저 요구하지만, 마침내 설악이 주는 아름다움에서 법희(法喜)를 느끼게 되는 그 자리에 봉정암은 오롯하다.

- <천년암자에 오르다>는 앞으로 매주 뉴스레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게재를 허락해주신 흐름출판사 한명수 대표님과 유영봉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주는 <노을 빛 고운 진신사리 탐>을 만나보겠습니다.



## ■ 후원사업 안내

###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제품”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 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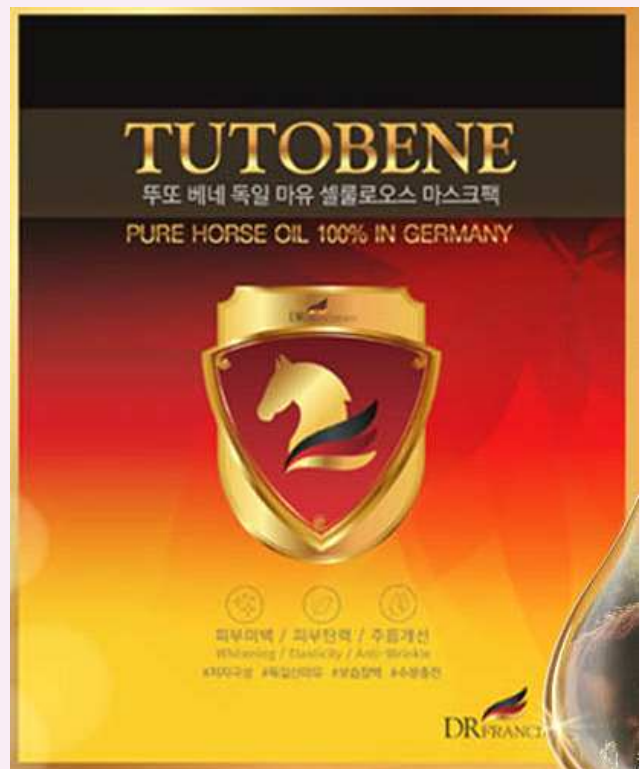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 ◎ 마유 팩 효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마유팩 25g \* 5매 >



< 마유팩 30g \* 5매 >

◇ 시 중 가 : 1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4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2만원

◎ **마유 샴푸 및 바디워시 효능**

- 가려움 예방 및 피부 각질제거
- 두피관리 및 머릿결에 영양 공급
- 피부 활력 및 보습진정 효과

◎ **마유 세럼 효능**

- 피부 수분 및 영양 공급
- 고운 피부결과 화사한 피부톤 지원



< 마유샴푸 및 마유 바디 워시 >



< 마유 세럼 >

◇ 시 중 가 : 2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6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3만원

◎ 시중가는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연구원을 통해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